

[특집]

코로나19 이후 의정부교구 사목*

■
변 승 식

[의정부교구 사목연구소장]

-
1. 코로나19 팬데믹은 어떤 영향을 남겼는가?
 2. 한국 천주교회에 대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3. 코로나19 시기 의정부교구와 본당의 사목적 대응
 4. 의정부교구 사목의 현황을 보여 주는 지표들
 5. 팬데믹 이후 의정부교구의 사목적 노력과 과제
 6. 결론
-

약 3년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은 여러 면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 의학과 자연과학에 대한 믿음, 국가와 사회 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신뢰가 깨어졌고 사람들의 두려움과 이기적 행동에 대한 실망도 컸다. 팬데믹의 원인으로 제기된 환경 파괴에 대한 자각이 일어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체험하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내적, 외적인 변화의 도전 속에서 교회와 사목, 신앙생활에 대한 성찰도 필요했다.

가톨릭교회의 구성원들이 체험한 가장 직접적이고 충격적인 상황은 사상 초유의 공적 미사 중단이라는 사건이었다. 성체성사가 제정된 이후 박해 중에도, 전쟁 중에도 이어졌던 공적인 미사가 전 세계적으로 중단되었다는 사실은 신자들뿐 아니라 사제들에게도 큰 충격이었고 사목적인 고민의 핵심이었다.

의정부교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초기부터 평신도들과 사제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2차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교구 내

* 이 글은 2024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된 논문임.

사제들과 평신도들에게 의뢰하여 펴낸 자료집, 팬데믹 당시 본당들의 대응을 조사하여 펴낸 자료집 등을 통해 팬데믹의 영향과 교회의 역할, 그리고 이후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성찰하였다.¹⁾

이 글에서는 먼저 코로나19 팬데믹의 과정과 전체적인 영향과 함께, 특히 본당의 신자들이 겪은 체험들, 그리고 다양한 사목적인 시도를 간단히 소개하겠다. 다음으로는 팬데믹 이전부터 현재까지 의정부교구의 사목 현실을 드러내 보여 줄 수 있는 통계적 지표를 찾아 현 상황과 전망을 가늠해 보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목적인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1. 코로나19 팬데믹은 어떤 영향을 남겼는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외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이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건강과 생명의 위협이 그것이다. 개인과 조직사회는 여기에 각자의 판단대로 대응하여 자기 행동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국제 사회는 그 출처와 감염 경로, 보건적 대응을 위한 정보들을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공개하였다. 각 국가는 공개된 정보와 국가의 상황 등을 근거로 외교 정책과 국내 보건 및 이에 부수되는 정책들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였다. 각 정부의 대응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새로운 바이러스의 확산을 얼마나 심각하게 전망할 것인지, 그리고 그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할 것인지, 즉 개인과 단체의 자유를 얼마나 규제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데서 그 차이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의 방향은 최선에 가까웠다. 타인을 위해 나의 자유와 욕구를 기꺼이 희생하는 개인과 단체의 협조가 큰 힘이 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소수의

1) 참고 문헌에 나열된 의정부교구 사목연구소의 자료집들은 의정부교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예외가 있었고, 그들이 가져온 감염 확산으로 커다란 사회적 비난이 집중되면서 더욱 강력한 보건 정책에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 바이러스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는 정책들과 그것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는 첫째 영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간접적이고 다양한 둘째 영향, 즉 사회와 개인의 판단과 선택에 따른 정책과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간접적인 영향의 원인이 된다. 국제 사회와 정부는 그들의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받는데, 그것은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이 정책들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들의 삶에는 대부분 어려움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교육의 단절도 심각한 문제였고, 온라인 교육으로의 전환은 준비가 되지 않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종교단체의 경우 대면 만남이 제한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공적 예배와 모임이 금지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국가 권력과 종교의 갈등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크게 드러나는 일탈들도 있었다. 그 배경에는 신앙으로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도 중요한 요인으로 존재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해 개인들은 또한 그들의 판단과 선택을 하고 행동에 옮긴다. 일을 그만두고 다른 경제활동을 찾거나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준비하는 일,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여 늘어난 여가 시간에 원하는 공부를 하거나 OTT 서비스로 위안을 찾는 것, 국가나 다른 단체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모두 개인의 선택과 행동이며, 개인들은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인다. 첫 번째 영향의 원인인 팬데믹이 사라지거나 그 힘을 잃으면, 여기 연결된 두 번째 영향도 서서히 열어진다. 끝내 극복하지 못한 결과들은 장기적인 영향을 끼치겠지만, 그것은 그저 삶의 일반적인 조건들로 변화한다.

그러면 세 번째의 영향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 영향과 두 번째 영향을 겪으면서 체험한 모든 기억과 그것으로 인한 가치체계의 변화이다. 그것은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다. 과학과 의학의 발달과 자연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 낙관적이었던 사

람은 초기에 적절한 예측과 처방을 제공하지 못한 자연과학의 무력함에 실망했을 수도 있고, 다른 이는 신속한 백신의 개발과 양산에 과학의 발전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피해를 많이 줄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두 가지 서로 다른 방향의 기억과 생각은 과학에 대한 가치 판단에 각기 다른 영향을 줄 것이다. 타인에 대한 체험도 어떤 이에게는 개인적인 이익이나 잘못된 신념 등으로 방역에 구멍을 낸 이들에 대한 기억이, 또 어떤 이에게는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헌신적으로 남을 도운 이들에 대한 기억이 인간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거나, 또는 신뢰를 가져왔을 것이다. 거리두기로 인해 인간관계가 어려워졌던 기억도 어떤 이에게는 회식이나 불편한 만남이 줄어 좋았던 기억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억으로 남아 정반대의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영향들을 통해 사람들은 많은 새로운 체험을 하였다. 직접 전쟁이나 다른 심각한 재난을 겪는 것만큼 심각한 결과는 아닐 수 있으나 기존의 경험과 다른 새로운 체험이라는 면에서 가치체계를 변화시키는 영향은 오히려 클 수도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도록 제시하는 이유는 세 번째 영향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의 영향을 평가하고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의 회복을 가능할 때, 우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영향들에 집중하기 쉽다. 숫자로 드러나고 쉽게 참고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양적인 기준들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범주의 영향들에는 때로 관심을 두기는 하지만 쉽게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드러나는 것이 아니어서 여기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오랫동안, 어쩌면 죽을 때까지 남아 개인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 번째의 영향으로, 기억에 의한 가치체계의 변화이다.

2. 한국 천주교회에 대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위에서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해 본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한국 교회에는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여기에서는 이 글의 주제에 따라 의정부교구의 경우를 중심으로 하고, 그중에서도 본당의 신자들과 사목자들에 대한 영향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영향 중에서 본당의 신자들이 가장 먼저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신앙생활과 방역 사이에서 교구와 본당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정책을 정하여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한국 교회는 2020년 2월 감염자가 폭증하자 1주일 안으로 모든 교구가 공동체 미사 중단을 결정하여 공지하였다. 한국 교회 역사상 박해와 전쟁 중에도 없었던 초유의 사태였지만, 다른 종교들이 주저하던 결정을 용기 있고 신속하게 내렸던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신자들과 사제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신천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었던 상황에서 공동체 미사 중단은 특히 모든 이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애덕의 실천임을 강조하여 교회와 신자의 정체성과 조화를 이룬 것이 좋은 평가와 종교에 대한 자부심까지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미사 중단의 시한이 연장되고 장기화하면서 본당마다 다른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어떤 이들은 철저한 방역을 원했고 다른 이들은 빨리 공동체 미사를 재개하기를 원했다. 연령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정치 성향에 따라 갈라지는 이 의견들은 때로 상당히 강하게 표현되었다.

교회가 이 시기에 집중하였던 과제는 방역,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위한 도움,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에 대한 지원이었다. 특히 대면 모임을 전제로 하는 성사의 거행이 어려워지고 신자들의 소모임도 중단된 이때,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어 신자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교회 당국과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크나큰 도전이었다. 다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들도 시도되었고, 큰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굳게 닫힌 성당 문과 출입을 통제하는 표지판은 신자들에게 성당에서조차 거부되었다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였다.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와 지지가 필요한 시기에 신앙과 믿는 이들과의 친교가 단절된 것이다. 공동체 미사 중단 결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지하기는 하지만,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너무나 쉽게 문을 닫았다는 당혹감과 서운함이 느껴지기도 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팬데믹의 확산에 따라 강화되었다가 완화되는 일을 반복하면서 제한적으로 미사가 재개되었고 또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다. 소모임은 좀 더 길게 금지되었으나 오히려 소수가 식당에서 만날 수는 있었다. 교회는 거리두기의 단계에 따른 지침을 준수하여 미사를 거행하되, 건강상의 위협이 큰 고령층의 미사 참례는 삼갈 것을 권유하였다. 하지만 코로나 후반기로 들어서자 사람들은 건강보다는 사회생활을 지키는 것을 더 우선시하기 시작하였다. 제일 먼저 교회로 돌아온 것은 고령층의 신자들이었고, 직장인들은 직장의 사정 때문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자녀로 둔 이들은 이들의 건강과 학교생활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하여 더 오랫동안 미사에 참례하지 않았다. 한 사람이 확진되면 가족 전체가 감염되거나 그러지 않아도 격리를 해야 하는 분위기에서 이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세 번째 영향을 생각해 보자.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후, 첫 번째 영향은 사라졌으며 두 번째 영향도 경제적 불황이나 사회생활 안에서의 몇 가지 문화적인 변화를 제외하면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더욱이 교회나 신앙생활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교회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세 번째 영향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다. 지금 어느 평신도에게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공동체 미사가 중단되고 소모임이 어려워졌던 것이지만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겪은 작은 것들이다. 본당에서 시도한 대안들, 굳게 닫힌 성당의 문, 온라인 미사, 신부님의 편지, 도시락을 만들고 나눠주는 봉사 참여한 것 등,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다. 특히

새로운 체험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 이는 교회의 가치에 대한 성찰을 가져온다. 믿음이 팬데믹이라는 현실을 즉시 해결할 것을 기대한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현실 안에서 교회가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면서 굳은 신앙으로 그것을 겪어내도록 이끌어 줄 것을 신자들은 기대했을 것이다. 이것은 한 가정이 어려운 일을 겪어나가는 과정에서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 느끼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 자녀들이 어느 정도 컸다면 부모라고 해도 뭐든지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부모가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그들과 대화하고 존중하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살피는 모습은 그들에게 위안과 감사의 마음을 일으킨다. 때로는 부모의 무능이 원망스럽고 불안한 모습과 부족한 배려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의 노력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교회의 가치에 대한 성찰, 또는 평가는 그러한 믿음과 애정을 전제로 한다. 영원히 굳건할 것만 같았던 교회가 갑자기 너무나 무력하게만 느껴지는 상황, 공동체 미사 중단과 소모임 금지라는 결정을 신자들은 이성적으로는 수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의 공백을 채우는 소통과 배려들이었다. ‘코로나 시기에든 교회에 나를 잊지 않았고 나를 이끌어 주고 위로해 주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였다.’ 이런 기억들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살아계시며, 그래서 교회는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어떠할까? 교회가 다시 문을 열었을 때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한층 무거워지거나 아예 다시 돌아갈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교회의 대응은 어떠했고, 신자들의 체험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지금 그 결과는 어떠하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코로나19 이후의 사목을 이야기하려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대응과 영향을 더 깊이 성찰해야 한다.

3. 코로나19 시기 의정부교구와 본당의 사목적 대응

교구의 대응에 있어서는 위에 소개된 대로 방역과 관련된 지침들을 공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정부의 대응 지침이 변경될 때마다 이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매우 세세히 정리하여 전달하였다. 하지만 본당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신자들의 생각과 처지도 다양했기에, 구체적인 사목적 대응은 본당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져 있었다. 교구는 본당의 더 적극적인 대응을 돕기 위해 본당의 대응 사례들을 수집하여 자료로 제공하였다.

교구 사목연구소는 본당의 대응 노력을 더 깊게 다루기 위해 2020년 10~11월에 8개의 본당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²⁾ 이 보고서의 목적은 본당의 대응을 참고할 만한 사례로만 볼 때 놓칠 수 있는 것들, 어떤 결정을 내릴 때와 실행할 때 사제와 본당 평의회가 가졌던 고민과 어려움들, 그러한 노력과 시도에 대한 일반 신자들이 느낀 감사했거나 아쉬웠던 점 같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아쉬움이나 오해로 남을 수도 있는 어려운 시절의 기억을 정리해 보자는 것이었다.

보고서에서 첫째로 눈에 띄는 것은 각 본당의 어려운 사정들이다. 주임신부가 새로 부임하고 바로 다음 주에 미사가 중단된 경우, 사목평의회 위원들이 거의 모두 임기를 넘겨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경우, 본당이 새로 분가한 경우 등, 위기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 많았다. 또한 본당의 상황에 따라 대응 방향에 차이가 많다는 점도 잘 드러났다. 한 본당은 위기 속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견진성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B급 짜라시를 닦은 홍보물로 쉬는 교우들까지 초대하고 온라인 교육과 실천 점검을 통해 191명의 견진성사를 거행하였는데, 한정된 미사 정원 때문에 주교님께 부탁하여 2번의 미사로 거행하였다. 다른 본당에서는 본당의 사목평의회 활동이 어려

2) 의정부교구 사목연구소, 「주님의 도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리라: 본당의 코로나19 대응현황 조사보고서」, 2020.

운 가운데 주임신부가 하루 종일 집무실을 지키며 만남의 문을 열어 두는 소극적인 노력도 있었다. 드라이브스루를 통한 성지 축성, 온라인 미사 후 성당 마당에서 제공한 워킹 스루 영성체 등의 창의적인 방식들도 인상 깊었다. 거의 모든 본당에 공통적이었던 대응은 온라인 미사, 온라인 교리, 온라인, 오프라인을 망라한 사제의 편지나 선물 전달 등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난한 이들과 노인들을 위한 도시락이나 반찬 배달 등의 봉사에도 역시 많은 봉사자들이 참여하였고 보람찬 기억을 남겼다. 사제, 수도자, 봉사자, 그리고 다양한 처지의 신자들이 자신의 처지에서 노력하고 체험했던 내용을 진솔하게 나누었고, 그 이야기 안에는 교회와 신앙과 사목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었다. 교회가 이 상황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 코로나 시기에 교회는 중단의 시기가 아니라 더 빠르게 움직였다는 증언, 스스로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부족했다는 깨달음 등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교회, 사목자, 평신도들이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주어졌다는 표징을 가리키고 있었다.

물론 여기서는 대면 인터뷰의 특징상 긍정적인 단면이 주로 드러났고 그 이면에는 부정적인 면도 많았다. 온라인 설문으로 수집한 의견들에는³⁾ 가톨릭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다양한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많았지만 교회가 본질적인 모습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 사제가 더 따뜻하고 친절하게 신자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의견, 평신도의 끼리끼리 문화에 대한 비판, 소통과 친교, 공동체 의식에 대한 갈망, 디지털 문화 등의 새로움에 교회가 적응하고 변화하기를 바라는 등 다양한 비판과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사제나 평신도나 사목과 신앙생활에 대한 자기반성도 포함되었다. 이런 체험과 생각은 가치 재평가에 있어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교회에 대한 애정과 교회 안에서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에 대한 믿음, 그리고 교회는 살아 있고, 끊임없

3) 의정부교구 사목연구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신자 의식조사 보고서: 2020년 제1차 조사보고서」, 『2021년 제2차 조사보고서 통합』, 2024.

이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게 하는 체험에서 오는 희망이 그것을 긍정적인 영향으로 바꿀 것이다. 신자들이 본당의 대응에서 느낀 매우 중요한 내용 하나는 소속감인데, 이것은 개인적인 소통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사제의 손 편지, 사제와 봉사자들이 준비한 온라인 미사, 사제와의 직접 통화, 내 집 앞에 두고 간 선물, 내 이름이 들어간 문자 메시지, 신자 개인의 이름표를 두고 하는 온라인 미사 등은 사제가 나를 본당의 일원으로 특별히 생각하고 돌보아 준다는 느낌, 본당 안에 나의 자리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주어 소속감을 강화시킨다. 반면에 성당 게시판에 붙은 A4 용지에 딱딱하게 쓰인 “65세 이상 미사 참례 금지”와 같은 안내는 적지 않은 노인 신자들에게 ‘아, 나는 늙었다고 성당에서도 배척받는구나’와 같은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어떤 식으로든 본당의 소통 노력에서 누락된 이들이 있다면 그들도 큰 섭섭함을 느꼈을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동체 미사와 소모임, 교육, 신심행사 등에 큰 어려움과 공백을 겪고 신앙생활의 도움을 장기간 받지 못한 신자들이 팬데믹 이후에 얼마나 돌아올 것인가, 그리고 그 체험으로 이들의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을 것인가 하는 것을 교회는 고민하고 있다. 그 고민은 교회와 신앙생활, 성사생활에 대한 신자들의 생각과 가치 판단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교회, 특히 본당의 대응에 대한 체험에 크게 영향을 받았을 것임을 전제한다. 신자들은 새로운 사태 안에서 교회의 모습을, 자신의 신앙생활을, 교회와 자신을 연결해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새롭게 보고, 새롭게 그 가치를 판단하도록 강요받았다. 얼마나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체험을 하였고, 또 그 체험을 어떻게 스스로 성찰하고 기억에 남겼으며, 지금까지도 진행 중일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교회와 신자들의 현 상황과 과제이다.

4. 의정부교구 사목의 현황을 보여 주는 지표들⁴⁾

교회의 사목 현실을 가장 쉽게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통계 수치들이다. 통계 자료들은 필연적으로 오류를 포함하기 나름인데, 그 오류가 심각한 항목이 있고 대략 정확한 항목도 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항목은 교구 신자 수다. 이 숫자는 대체로 정확한 쪽에 가깝다. 한국 교회는 교적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이고 전국 통합으로 데이터를 연동하여 중복되는 교적들을 거의 삭제하였으므로 세례받은 이들을 모두 신자로 보는 교회의 정의에 따른 신자 수를 거의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이 정의는 교회 내에서는 신학적으로 정당한 것일 수 있지만, 종교 밖에서 보는 정의와는 차이가 있다. 세례를 받으면 그 사실이 대장에 기록되고 이는 임의로 취소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다른 종교를 다녀도 냉담 중인 천주교 신자로 보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10년 주기로 종교인구를 조사하는데, 2015년의 조사 결과(20% 표본 조사)는 한국의 천주교 인구가 3,890,311명이었다. 반면에 주교회의에서 발표한 2015년 신자 총수는 5,655,504명으로, 이 두 수를 비교하면, 세례받은 신자 중에 본인이 스스로 천주교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68.8%에 불과하며, 나머지 31.2%는 본인을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차이는 해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세례받은 신자는 빠짐없이 교적에 올라가는 데, 떠나는 신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차이는 개신교의 차이보다 큰 것으로, 신자 수를 부풀린다는 오해를 사거나 교회에 대한 신뢰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더 현실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교회의 현실 파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숫자는 없을까? 주교회의가 파악하는 항목 중에 주일미사 참여자 숫자가 있다. 이는 매 주일 참여자 수의 평균인데, 아주 정확하기는 어렵지

4) 이 장의 통계 자료들(연도별 신자 수, 평균 주일미사 참석자 수, 행불자 분당 신자 수)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매년 발행하는 한국 천주교회 통계의 수치를 사용하였다. 다만, 의정부교구의 인구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를 사용하였다.

만 대략 실제에 근접한 숫자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신앙 생활을 하는 신자의 수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미사에 참여하는 모든 이가 모든 주일의 미사를 빠짐없이 참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숫자를 신자 수와 비교해 보면 매우 적은 수치가 나오는데, 2015년 한국 신자 수 대비 주일미사 참여자 수의 비율은 20.7%였고, 코로나 직전인 2019년의 비율은 18.3%였다. 2023년의 비율은 13.5%이다. 그런데 본당에서 느끼는 주일미사 참여자의 비율은 이보다는 높다. 본당에서는 교적 신자의 약 30% 정도가 코로나 이전에 주일미사에 참여하였다고 말한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교구마다 처리 방식과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의정부교구를 비롯한 여러 교구가 교구의 가상 본당을 하나 만들어서 본당의 교적 중에 현주소를 알 수 없는 소위 ‘행불자’ 교적을 이 가상 본당으로 전출시키도록 하고 있다. ‘행불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본당이 파악하고 있는 주소로부터 이사를 하면서 전입/전출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 본당에서는 그 사람이 스스로 본당을 찾아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한 사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즉, 이들은 더 이상 신자로서 본당의 사목 대상이 되지 않기에 교구청의 가상 본당으로 전출 처리를 하여, 언제든 다시 되살릴 수는 있지만 본당에 속하지는 않는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다. 의정부교구의 경우, 2015년에 전체 신자 수 대비 가상 본당의 신자 수, 즉 행불자의 비율은 26.7%였고, 코로나 직전인 2019년에는 30.1%였다. 그리고 2023년에는 33.6%가 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비율이 교적 상의 신자 수와 비교한 인구 조사에서 스스로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고 답한 세레받은 이의 비율(31.2%)과 근접하다는 것이다. 단, 여기에는 시차가 존재한다. 즉, 2015년 현재 교회로부터 마음이 떠난 이들이 31.2%라고 해도, 그중에서 거주지를 옮기지 않은 사람은 행불자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 2022년 발표된 국토연구원의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1년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의 현재 거주지 평균 거주 기간은 6년이었다. 즉, 평균 6년마다 이사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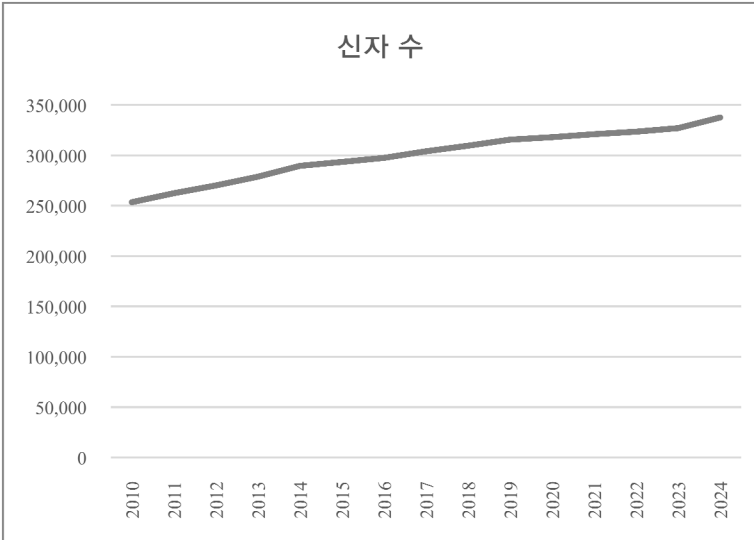
는 것이다. 따라서 대략 5~6년 후에 교회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들의 숫자가 반영된다고 본다면 4년 뒤인 2019년의 30.1%, 8년 뒤인 2023년의 33.6% 사이에 들어가는 31.2%라는 비율이 현실과 매우 가까운 값을 알 수 있다. 그러면 2025년에 있을 종교인구 조사에서는 한국 교회가 발표하는 신자 수와 종교인구 조사의 신자 수의 차이가 거의 40%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지표를 주목할 것인가? 어떤 지표가 코로나 이후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더 현실적으로 보여 줄 수 있을 것인가? 단순히 미사 참여자의 수와 비율을 볼 때, 2023년 말의 주일미사 참여자 수(47,159명)는 코로나 직전인 2019년 말(62,585명)의 75.4%이다.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단순히 두 시점을 비교하기보다 지금껏 이어져 온 흐름 안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발표되고 주목되어 온 두 가지 지표, ‘신자 수’와 ‘인구 대비 신자 비율’을 먼저 살펴보자. 의정부교구의 통계는 교구 설립 연도인 2004년 말부터 존재하지만, 분리된 전산 자료의 안정화와 2008년 전국 데이터 통합 등으로 해서 그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2010년부터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2010~2023년의 데이터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한국 천주교회 통계 자료』를 사용하였고, 이는 각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2024년의 데이터는 2024년 12월 9일 현재의 데이터이다.

[그림 1]과 [표 1]은 교구 소속 신자 수의 변화를 보여 준다. 이것을 보면 신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다음으로는 의정부교구 지역의 인구에 대한 신자의 비율을 [그림 2]와 [표 2]에서 살펴보자. 2014년 이후의 신자율은 정체된 것으로 보이지만 미세하게나마 증가하였다. 이 두 지표를 보면 교회의 현실을 잘 느낄 수가 없다. 적어도 현상 유지 또는 성장이 둔화되었다고 느낄 뿐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몸과 마음이 이미 교회를 떠나 본당의 사목 범위에서 벗어난 이들의 수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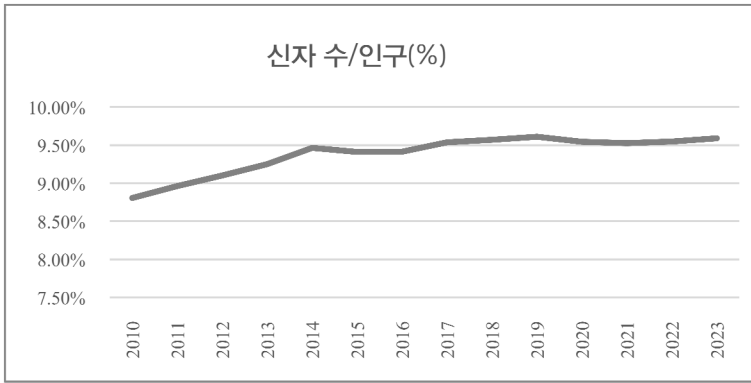
[그림 1] 2010~2024년 의정부교구 신자 수



| 연도 | 신자 수 | 연도 | 신자 수 |
|------|---------|------|---------|
| 2010 | 253,504 | 2018 | 309,591 |
| 2011 | 262,411 | 2019 | 315,620 |
| 2012 | 270,136 | 2020 | 318,050 |
| 2013 | 278,836 | 2021 | 321,027 |
| 2014 | 289,590 | 2022 | 323,536 |
| 2015 | 293,479 | 2023 | 327,049 |
| 2016 | 297,502 | 2024 | 337,613 |
| 2017 | 304,048 | | |

[표 1] 2010~2024년 의정부교구 신자 수

[그림 2] 2010~2023년 의정부교구 인구 대비 신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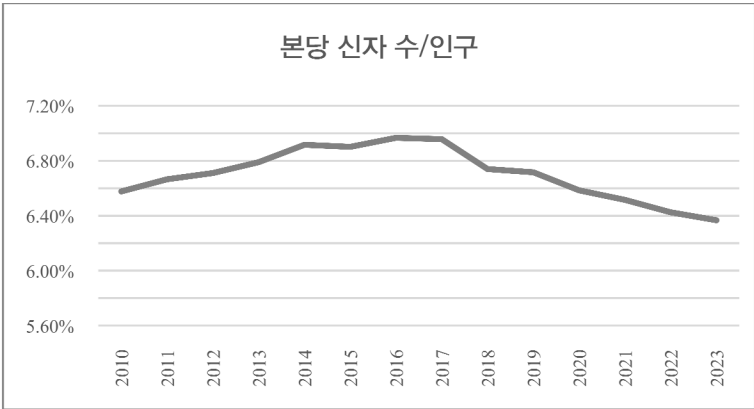
| 연도 | 신자 수 | 연도 | 신자 수 |
|------|-------|------|-------|
| 2010 | 8.81% | 2017 | 9.54% |
| 2011 | 8.96% | 2018 | 9.57% |
| 2012 | 9.10% | 2019 | 9.61% |
| 2013 | 9.25% | 2020 | 9.54% |
| 2014 | 9.46% | 2021 | 9.53% |
| 2015 | 9.41% | 2022 | 9.55% |
| 2016 | 9.41% | 2023 | 9.59% |

[표 2] 2010~2023년 의정부교구 인구 대비 신자 비율(%)

그러면 앞에서 언급한 ‘본당에서 교구청 가상 본당으로 진출시킨 행복 신자’ 수를 반영한 통계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그림 3]과 [표 3]은 인구 대비 ‘본당 신자 수’를 보여 주는데, 즉 교구의 교적 신자 수에서 가상 본당으로 진출된 행복 신자를 제외한 신자 수, 본당에서 사목 대상인 신자 수가 교구 인구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는 신자의 비율이 2016년 이후 2023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23년의 신자 비율은 이 기간 최저치로 2010년보다도 낮다. 앞의 두 지표와는 상반된 내용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차이를 가져오는 행복 신자 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주시해야 한다.

[그림 3] 2010~2023년 의정부교구 인구 대비 본당 신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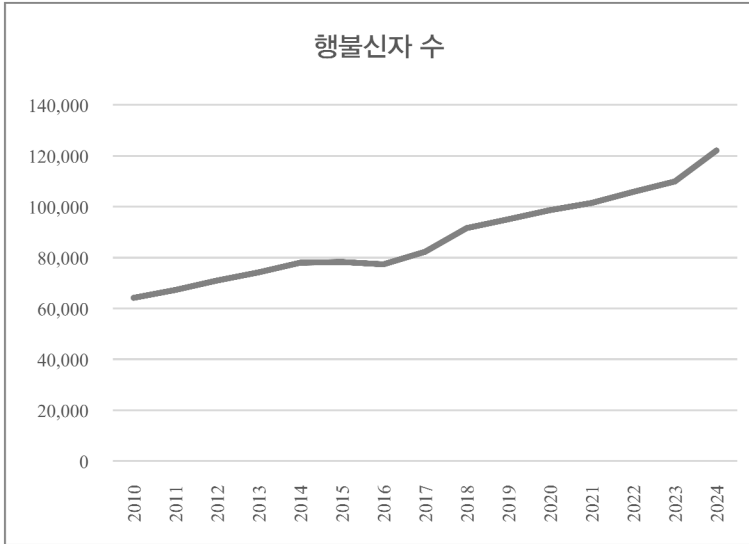


| 연도 | 신자 수 | 연도 | 신자 수 |
|------|-------|------|-------|
| 2010 | 6.58% | 2017 | 6.96% |
| 2011 | 6.66% | 2018 | 6.74% |
| 2012 | 6.71% | 2019 | 6.72% |
| 2013 | 6.79% | 2020 | 6.58% |
| 2014 | 6.92% | 2021 | 6.51% |
| 2015 | 6.90% | 2022 | 6.42% |
| 2016 | 6.97% | 2023 | 6.37% |

[표 3] 2010~2023년 의정부교구 인구 대비 본당 신자 비율(%)

[그림 4]와 [표 4]는 2010~2024년 행불 신자 수를 보여 주는데, 2015년과 2016년을 제외하면 2023년까지 거의 직선으로 이어지고 2024년에는 큰 폭으로 늘었다. [표 4]는 또한 신자 대비 행불 신자의 비율을 보여 주는데, 2024년에는 신자의 36.16%가 행불 신자로, 이미 교회를 떠나 본당의 사목이 닿지 않는 곳에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림 4] 2010~2024년 의정부교구 행불 신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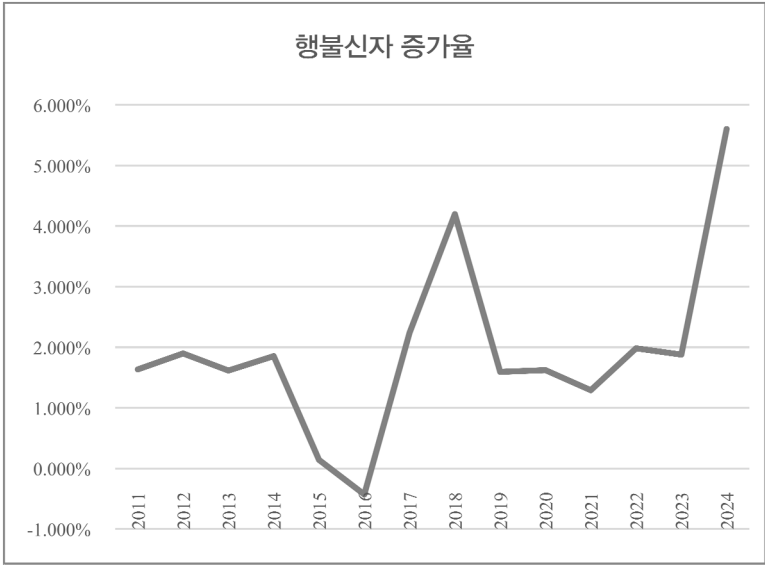


| 연도 | 행불 신자 수 | 행불 신자 비율 | 연도 | 행불 신자 수 | 행불 신자 비율 |
|------|---------|----------|------|---------|----------|
| 2010 | 64,188 | 25.32% | 2018 | 91,600 | 29.59% |
| 2011 | 67,281 | 25.64% | 2019 | 95,073 | 30.12% |
| 2012 | 70,983 | 26.28% | 2020 | 98,650 | 31.02% |
| 2013 | 74,199 | 26.61% | 2021 | 101,481 | 31.61% |
| 2014 | 77,991 | 26.93% | 2022 | 105,832 | 32.71% |
| 2015 | 78,289 | 26.68% | 2023 | 109,921 | 33.61% |
| 2016 | 77,363 | 26.00% | 2024 | 122,087 | 36.16% |
| 2017 | 82,292 | 27.07% | | | |

[표 4] 2010~2023년 의정부교구 행불 신자 수와 신자 대비 비율(%)

행불 신자의 증가 경향을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전년 대비 행불 신자의 증가율을 계산하였다. 그 계산식은 ‘(금년도 행불 신자 수 - 전년도 행불 신자 수) / 전년도 행불 신자 수’이다. 그 결과를 보여주는 [그림 5]와 [표 5]에서, 우선 2015~2018년의 패턴에 눈이 간다.

[그림 5] 2010~2023년 의정부교구 행불 신자 증가율(%)



| 연도 | 행불 신자 증가 수 | 전년 대비 증가율 | 연도 | 행불 신자 증가 수 | 전년 대비 증가율 |
|------|------------|-----------|------|------------|-----------|
| 2011 | 3,093 | 1.634% | 2018 | 9,308 | 4.197% |
| 2012 | 3,702 | 1.897% | 2019 | 3,473 | 1.593% |
| 2013 | 3,216 | 1.615% | 2020 | 3,577 | 1.622% |
| 2014 | 3,792 | 1.853% | 2021 | 2,831 | 1.290% |
| 2015 | 298 | 0.141% | 2022 | 4,351 | 1.982% |
| 2016 | -926 | -0.430% | 2023 | 4,089 | 1.878% |
| 2017 | 4,929 | 2.239% | 2024 | 12,166 | 5.603% |

[표 5] 2010~2023년 의정부교구 행불 신자 증가율(%)

2014년 8월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하였다. 2011~2019년의 증가율 평균은 1.638%인데 2015년에는 0.141%로 행불 신자가 거의 늘지 않았고 2016년에는 -0.430%로 오히려 줄었다. 교회의 사목 대상에서 이탈했던 이들 일부가 자발적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 효과는 3년을 채 가지 못하였고, 오히려 2017년에는 평균을 넘어서

는 2.239%가, 2018년에는 4.197%가 증가하였다. [그림 5]에서 보이는 대칭적인 패턴은 프란치스코 교황 효과로 이전까지 평균적으로 이탈하였을 신자들이 머물거나 돌아왔으나, 이후 2년 만에 그 숫자가 지 더하여 빠져나갔다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를 가리키고 있다. 즉, 의정부교구 신자 중에서 해마다 행불 신자로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교황의 방한은 그저 잠시 더 머물게 하는 이벤트에 불과했고 장기적인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지는 못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단순한 분석이긴 하지만, 이로써 ‘행불 신자 수’가 이렇게 민감하게 신자들의 이탈 패턴을 보여 주는 표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지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 대해 어떤 것을 말해 주는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2011~2019년의 행불 신자 증가율 평균은 1.638%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심했던 2020년에는 평균에 아주 가까운 1.622%의 행불 신자가 증가하였다. 2021년에는 그보다 낮은 1.290%가 증가하였고,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982%와 1.878%의 행불 신자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연속해서 꽤 높은 비율이다. 사실 처음에는 정식으로 발표된 2023년까지의 데이터만을 분석하려 했으나, 그 이후의 패턴이 매우 궁금했고 2024년 말에 가까운 시기였기에 전산 담당 직원에게 부탁하여 현재 날짜의 데이터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5.603%의 증가를 보여 주었다. 이는 코로나 이전까지 평균적으로 본당 신자의 1.638%가 매년 본당을 떠났던 반면, 2024년에는 그 평균의 약 3.4배가 넘는 신자가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다.

5.6%는 그리 큰 숫자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숫자가 주는 착시에 빠져서는 곤란하다. 우리가 본당에서 보는 신자의 수, 즉 평균 주일미사 참석자 수는 2019년에 본당 신자 수의 28.4%였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1.6%, 5.6%는 본당 신자 전체 대비 비율이다. 2019년에 의정부교구 주일미사 평균 참석자 수는 62,585명이었고, 2023년에는 47,159명이었다. 2023년의 참석자 수가 2019년 참석자 수의 75%이다. 이는 본당에서 보는 비율과 일치한다. 그 차이는 15,426명이다. 성당에서 주일에 볼 수 있는 신자 수가 2019년에

비해 15,426명이 줄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 2020~2024년의 5년간 늘어난 행불 신자 수는 27,014명이고 2024년에만 12,166명이 증가하였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 교회를 떠난 신자의 수는 본당에서 눈에 보이는 감소 수의 1.75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물론 떠나는 신자 중 많은 이가 이미 미사에 참여하지 않던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이들이 보이지 않는 사이에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경계해야 한다. 게다가 행불자 수의 한 해 증가율이 5.6%로 급격히 늘어난 2024년의 추세가 몇 년이나 지속될지는 알 수가 없다. 지속적인 주목과 분석, 그리고 대비가 필요하다.

5. 팬데믹 이후 의정부교구의 사목적 노력과 과제

하지만 양적인 지표를 보고 실망만 할 필요는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일부 신자들을 떠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지만 또한 이를 극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위한 열정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몇 가지 예와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해 본다.

1)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와 시노달리타스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코로나 이전부터 제시되었고 의정부교구는 2019년 사제연수의 주제로 이를 다루었다.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기 전 2021년에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가 개최되어 의정부교구는 교구 시노달리타스 팀을 구성하고 2022년 본당과 교구에서 경청모임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교구 시노달리타스 팀은 코로나를 극복하고 본당 공동체의 회복에 힘을 쏟고 있는 이 시기에 본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주저할 것을 걱정하였고, 오히려 시노달리타스의 주제들이 공동체 회복의 계기가 되고 본당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홍보하였다.

의정부교구 전체 본당의 85%인 72개 본당이 참여하여 본당경청모임을 진행하였고, 본당 외 경청모임을 더하여 총 5,573명의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참여하였다. 짧은 준비기간 등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에는 부족하였지만 다양한 의견을 서로 경청하고 성령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었다. 교구의 종합보고서는 교구 사제들과 신자들에게 공유되었고, 특히 경청과 환대,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도 중요한 주제로 논의되었다. 이 주제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서의 대처와 아쉬움을 이야기할 때에도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었다. 코로나의 경험이 그 중요성과 의미를 더욱 부각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교회가 이런 요소들을 포함하는 시노달리타스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으로 강조함에 따라 사제들과 평신도들도 그 중요성을 더 느끼고 적용하고자 노력하였다. 더 다양한 형식으로 신자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던 경험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이어가려는 노력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새로운 열정으로 많은 이의 참여를 독려하며 변화를 꾀하는 교회의 모습은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 쇠신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희망의 표징을 신자들에게 줄 수 있었다.

2) 청년, 청소년 사목의 성과들

코로나19는 연령층에 따라 위험성의 편차가 매우 컸다. 감염률은 커지고 치사율은 낮아진 후반에 가서도 여전히 노인들에게는 위험한 질병이었다. 그래서 한때는 노인 신자들에게만 가능하면 미사 참여를 조심해달라고 할 정도였다. 하지만 결국 가장 빨리 적극적으로 성당에 돌아온 분들은 노인 신자들이었다. 방역기준이 완화된 후에도 학생들은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젊은이들과 중장년층은 직장생활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그리고 가족과 학교 친구들, 직장에 감염을 퍼뜨리지 않도록 계속 조심해야 했기에, 오히려 이들은 성당으로 돌아오는 데 더 긴 시간이 필요했다. 이렇게 본당에서 멀어진 기간도 더 길었고, 또 젊을수록 그 기간의 상대적인 의미는

훨씬 크기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여러 어려움도 더 많이 겪었기에, 그 이전의 신앙생활 습관으로 돌아오기가 쉽지만은 않았다. 반면, 노인 신자들은 본당에서의 네트워크가 거의 인간관계의 전부가 가까운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신앙생활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아서 자연스럽게 돌아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 이유로 본당에서 증가한 행불 신자의 많은 수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일 것으로 미루어 볼 수 있다. 차제에 이 행불 교적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본당의 어린이와 청년 숫자는 교적 상의 숫자 자체가 크게 줄었다. 이 가운데 고무적으로 활발한 참여와 관심을 불러일으킨 어린이와 청년 사목 사례들이 있어 소개하려고 한다.

첫 번째는 어린이 성가 캠프이다. 이 캠프는 코로나 전에도 실시하였는데, 당시에는 본당 어린이 성가대 교육을 위한 캠프로 본당 별로 5명의 인원 제한을 두고 전문가들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캠프였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본당에서 성가를 부르지 못하였고, 어린이들이 미사에서 성가를 부를 수 있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였다. 아직 거리두기의 제약이 있던 2022년에는 참가인원을 100명으로 한정하였고(실제 참여는 9개 본당 어린이 107명과 인솔자 20명), 2023년에는 역시 100명으로 한정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258명(어린이 208명, 인솔자 50명)이 참가하였다. 2024년에는 아예 2차로 기획하여 18개 본당의 어린이 192명, 인솔자 45명, 봉사자 34명으로 총 270명이 참가하였다. 이러한 성공의 요인은 첫째 본당의 필요를 잘 파악하고 반영하여 유연하게 프로그램의 성격을 바꾸어 준비하였다는 것으로, 실제로 본당에서 어린이들이 우렁찬 목소리로 성가를 하여 전례 분위기가 살아나는 체험을 하였다는 피드백이 많았다. 2023년에 신청자가 폭증한 원인일 것이다. 둘째로 신청자가 폭증하였을 때, 어려움을 무릅쓰고 모두 수용하는 결단을 내린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것도 본당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이다. 셋째로는 이렇게 소통과 수용에 힘쓰면서도 그 목표를 확고히 정하고 휘둘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담당 부서는 이보다 더 차

수나 인원을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 오히려 본당에서 매년 참가하지 말고 프로그램이 바뀌지 않으니 3년 정도 간격을 두고 참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프로그램 개발의 부담도 줄이고 더 많은 본당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획하였다.

두 번째는 청년성서모임이다.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는 성서모임의 특성상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담당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거의 코로나 이전의 상황에 근접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음의 표를 보면 빠르게 회복된 숫자들이 보인다. 청년 사목은 본당에서도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성과는 매우 고무적이다.

| 년도 | 활동 본당 수(개) | 그룹원 수(명) | 연수 참여자 수(명) |
|-------|------------|----------|-------------|
| 2018년 | 31 | 269 | 130 |
| 2019년 | 33 | 332 | 120 |
| 2020년 | 22 | - | 57 |
| 2021년 | 19 | 51 | - |
| 2022년 | - | 78 | 32 |
| 2023년 | 15 | 229 | 97 |
| 2024년 | 23 | 222 | 157 |

[표 6] 2018~2024년 의정부교구 청년성서모임 현황

이상의 두 예는 특별한 사목의 기술이나 프로그램의 성과가 아니다. 오히려 기존의 활동들, 프로그램들을 더 세심한 소통과 노력으로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닿을 수 있었던 사례들이다. 새로운 비전이나 기법,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열정과 헌신이 충분한 변화를 끌어낼 수 있었던 예다.

3) 30~40대 신자들을 위한 자리 만들기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지표는 없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가장 빠르게 돌아온 연령층이 60대 이상의 신자들이라면, 가장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신자들은 대개 30~40대라고 추정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이 연령층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한국 천주교회의 약한 고리로 여겨져 왔다. 한국 교회가 가장 활발히 성장하던 20~30년 전에는 30~50대의 신자들이 주축이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것을 생각하면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본당에서는 30년 전의 30~40대가 아직까지 본당 봉사자들의 주축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이다.

경제적인 위축과 불안, 개인적인 취미나 가족 단위의 활동에 대한 욕구의 증대 등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이 연령대가 본당 공동체 안에서 갖는 불안정한 위치다. 이들은 사회에서 경제활동의 주역이면서도 50~60대의 상사, 선배, 고객들을 상대해야 하는 고달픈 위치에 있다. 더구나 정치적인 입장도 연령대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아 또 다른 긴장을 빚어내기도 한다.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는 그들끼리 함께할 자리가 마련되지만, 이들은 30대 이상의 어른들로 묶인 신자 층의 맨 아래에 방치되어 있다. 그들의 생각, 필요, 걱정, 바람 등을 신앙 안에서 나누고 신앙생활에 대한 조언을 받을 만한 자리가 없는 것이다.

이들은 가장 전성기의 지적·육체적 능력을 지니고 확고한 가치관을 갖고 세상을 살아간다. 하지만 본당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인정받기가 힘들다. 나이를 따지고 연륜을 따지는 인생과 신앙의 선배들 안에서 편하고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신앙을 키우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조용히 주일미사에만 참례하는 것도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에 좋은 길은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공부하고, 봉사할 자리가 이 세대에는 필요하다. 막내 취급하며 라떼를 주시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받는 스트레스 없이 말이다.

이런 고민은 한국 교회 모든 교구에서 이미 한참 전부터 논의되고 있다. 어린 자녀들을 위한 교육과 연결된 자부모회, 등산이나 자전거 등 취미를 중심으로 모이는 동호회, 영성 기도 모임 등 여러 가지 시도가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이 세대를 독립된 사목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동시에 다른 세대와 함께 어울릴 수 있게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의정부교구는 교구 차원에서 이러한 과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다양한 시도가 더 세심한 방법으로 꾸준히 시도되기를 바란다.

6. 결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의정부교구 사목에 대해 말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우선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중에서 체험과 기억에 의한 가치관 변화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이를 교회에 대한 영향에 적용하면, 본당 신자들에게 있어 본당의 사제와 공동체가 개인과 소통하고 돕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그 복음적 본질에 맞는 모습을 보여 주었는지가 신자들이 교회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유지하는 이유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의정부교구 8개 본당의 대처 노력과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의 체험을 수집한 자료집과 2차례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본당 공동체가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신자들과 소통하고 삶과 신앙의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던 증언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위안과 힘을 얻었다는 증언과 함께 부족함과 상처를 경험했다는 증언도 찾아볼 수 있었다. 소통과 배려와 환대라는 주제는 시노달리타스와 주교대의원회의의 주제와 겹치는 면이 있어 팬데믹을 극복하는데 상승효과를 주기도 하였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 글은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사목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수량적인 지표의 하나로 행불자 교적으로 전출된 숫자와 비율을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지표는 코로나의 영향 뿐 아니라 전체적인 신자들의 이탈을 이해하는데도 다른 지표들, 즉 신자 수, 인구 대비 신자 비율, 주일미사 참석자 수보다 더 정확하고 현실적인 그림을 보여 준다. 또한 이 지표는 10년마다 행해지는 종교인구조사와 교회가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신자 수의 차이와

그 차이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잘 설명한다. 주일미사 참석자 수로 볼 때, 의정부교구는 코로나 전의 75%가 주일미사에 참석하고 있고 이는 약간은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행불자 교적의 증가로 보면 주일미사 참석자 수로 감소한 신자 수의 1.75배에 달하는 숫자가 본당 사목으로부터 이탈했으며,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량적 지표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긍정적인 사목 결과들도 있었는데, 어린이 성가 캠프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때의 성가 중단으로 위축된 미사 분위기를 활력이 넘치게 바꿈으로써 본당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청년성서모임의 경우에도 모임이 대부분 중단된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로 단시간에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였다. 어린이와 청년의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의미 있는 결과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고질적인 현상인 30-40대 신자들의 이탈과 소극적인 참여에 대해 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사목적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의정부교구의 사목에 대하여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코로나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행불자 교적에 대한 분석과 연구이다. 행불자 교적은 성별, 연령대, 세례 시기 등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기에 분석이 쉽고, 이를 통해 어떤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 더 정교한 상황 파악과 대응 방안의 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둘째는 교구와 본당의 사목에 있어 소통을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평신도와 협력하여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강하게 요청되었던 것이고, 보편교회가 강조하는 시노달리타스의 정신과도 부합한다. 교회를 지키고 있는 신자들, 코로나 이후 돌아오고 있는 신자들, 떠나가고 있는 신자들의 다양한 처지와 그들이 바라는 교회의 도움, 교회의 모습은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찾고 실현할 수 없다. 지금 교회에 요청되는 사목은 획기적이고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니라, 신

자들의 다양한 필요와 관심, 능력과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마음을 다하여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는 사목적 관심과 사랑이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의정부교구 사목연구소, 「코로나19, 신학적 성찰과 사목 방향」, 2020.
_____, 「주님의 도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리라: 본당의
코로나19 대응현황 조사보고서」, 2020.
_____,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신자 의식조사 보고서:
2020년 제1차 조사보고서, 2021년 제2차 조사보고서 통합」, 2024.
_____, 「천주교의정부교구 성립 20주년 기념 교세 통계
분석보고서(2004~2023)」, 2024.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 천주교회 통계(2004~2023)』, 2005~2024.

국문초록

교회 안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은 신자들이 팬데믹 당시와 이후에 겪었던 신앙의 어려움과 본당의 대응에 대한 체험과 기억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한 가치관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은 특히 여러 자료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본당 내에서의 소통과 배려,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사랑 실천 등의 사목적 노력이 교회와 신앙의 가치와 희망을 새로이 발견하거나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을 제기한다.

의정부교구의 사목적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이 글은 일선 본당에서 교구의 가상 본당으로 진출된 행불자의 수에 주목하여, 통계 수치로 발표되는 신자 수나 눈에 보이는 미사 참석자의 감소보다 더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현실은 행불자의 꾸준한 증가와 코로나 이후 특히 2024년에 급증한 수치라는 점을 제시한다. 또한 향후 행불자 교적의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들에 대해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사목에서 희망적인 결과를 낳았던 경우도 소개하였는데, 그 성공의 요인은 현장에서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섬세하게 파악하고 그 요청에 열정적으로 응답하는 데 있었다고 본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팬데믹 당시에도 요청되었던 소통과 배려, 협력의 증진이며, 이는 보편교회가 강조하는 시노달리타스 정신과도 부합한다. 이에 이 글은 의정부교구가 평신도와의 소통과 협력에 계속해서 힘을 쏟아, 교회의 전통적인 가치들을 함께 찾아가는 데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 주제어: 코로나19 팬데믹, 사목 지표, 행불자, 소통과 협력, 시노달리타스.